

<https://kmuseumedu.org>

공동체 변화 속 미래를 바꾸는 힘,
박물관 교육

2025. 5. 17.(토), 13:00~15:00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공동체 변화 속 미래를 바꾸는 힘, 박물관 교육

세부일정

12:30-13:00	등록 및 개회 사회: 최명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3:00-13:10	환영사 이관호 한국박물관교육학회장
13:10-13:35	발표 1: 청소년 교육 정책 변화 속 박물관의 역할 모색 김은영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13:35-14:00	발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할과 의미 찾기 박에스더 목일중학교 교사
14:00-14:25	발표 3: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박물관 교육의 미래 역할 탐색 고유나 인천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해경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4:30-15:00	종합토론 및 폐회 좌장: 이승수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조혜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강선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 주제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영사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대주제는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 무형유산, 청년의 힘, 신기술'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박물관은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된 공간으로,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역할을 재정 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박물관교육학회는 '공동체 변화 속 미래를 바꾸는 힘, 박물관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를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의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청소년 교육 정책 변화 속 박물관의 역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할과 의미, 출산을 저하로 인한 가족 구조 변화에 박물관 교육의 미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박물관 교육의 확장된 사회적 역할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각각 정책적 변화, 문화다양성, 인구 구조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주요 담론을 바탕으로 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실천 지형을 탐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박물관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교육공간이자 사회적 연대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문적, 실천적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박물관이 어떤 사회적 책임과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좌장, 참석자 모든 분들께 다시한 번 깊이 감사 드리며,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안겨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학술위원회와 총무이사회, 그리고 한국박물관협회와 ICOM 한국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7일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회장 이관호

목차

09	발표 1: 청소년 교육 정책 변화 속 박물관의 역할 모색 김은영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26	토론: 조혜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31	발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할과 의미 찾기 박에스더 목일중학교 교사
48	토론: 강선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51	발표 3: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박물관 교육의 미래 역할 탐색 고유나 인천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해경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68	토론: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청소년 교육 정책 변화 속 박물관의 역할 모색

김은영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I. 들어가며

우리는 박물관 전시실에 들어선 순간 전시품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경험을 한다. 뿐만 아니라 계절을 담은 박물관 야외 정원을 거닐고 잠시 카페에 앉아 휴식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가 제시한 박물관의 핵심 역할과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평생교육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¹ 우리는 곳곳에서 참여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지역분권제,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등 정치·사회·문화예술 다방면에서 공동체를 통한 참여적 실천을 목격한다.² 니나 사이먼(Nina Simon, 2015)은 박물관에서 학습은 복합적, 능동적, 사회적인 과정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습과 경험의 플랫폼으로서 참여적 박물관(Participatory Museum)³을 이야기했다. 참여적 박물관에서 관람객은 전시품과의 상호작용에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시킨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핵심 역량으로 박물관은 이들이 박물관을 통해 공동체에 참여하고, 연계·교류하며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박물관에서 청소년이란 교육프로그램의 한 대상으로 논의되었다면 본 글에서는 청소년과 교육 정책 속에서 공동체 참여를 위한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박물관 교육과 청소년 정책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모든 소통의 활동, 즉 소장품의 수집, 연구, 전시, 교육 활동을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⁴ 박물관 교육은 좁은 의미로는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law.go.kr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museum 참조

2 서진선 외, 2019, 「지역기반 박물관에서의 참여적 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한국박물관학회, 108-109쪽 정리

3 니나 사이먼의 참여적 박물관이란 전시품 중심적 전통적 박물관에서 벗어나 관람객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하는 지역사회 중심적 박물관을 의미

4 백령, 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19쪽

다양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넓은 의미로 전시, 어린이박물관 등의 교육적 활동으로 진행되어 왔다. 맥락적 학습모형(The Contextual Model of Learning : John Falk & Lynn Dierking)과 구성주의 이론(Constructivism Theory : George Hein)은 박물관에서 교육적 활동에 의미를 밝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맥락적 학습모형은 관람객의 학습 경험이 개인적, 사회문화적, 물리적 맥락 속에서 상호소통, 경험, 이해로 박물관의 경험을 설명하고, 구성주의 이론은 학습자는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학습자의 참여 가능한 상호작용과 체험 활동, 비형식적 학습 등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뒷받침해 주었다. 니나 사이먼(Nina Simon)의 참여적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학습은 복합적, 능동적, 사회적인 과정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습 및 경험의 플랫폼으로서 박물관을 주목한다.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박물관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박물관에서 교육 대상으로 청소년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 등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되어야 한다.⁵ 박물관은 소장품의 전시, 연구, 보존 등을 통한 비형식적 학습, 자기주도성, 공동체적 윤리성 등으로 미래 세대 청소년이 자라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내 주요한 협력자이자 공간이다.

III. 박물관과 청소년의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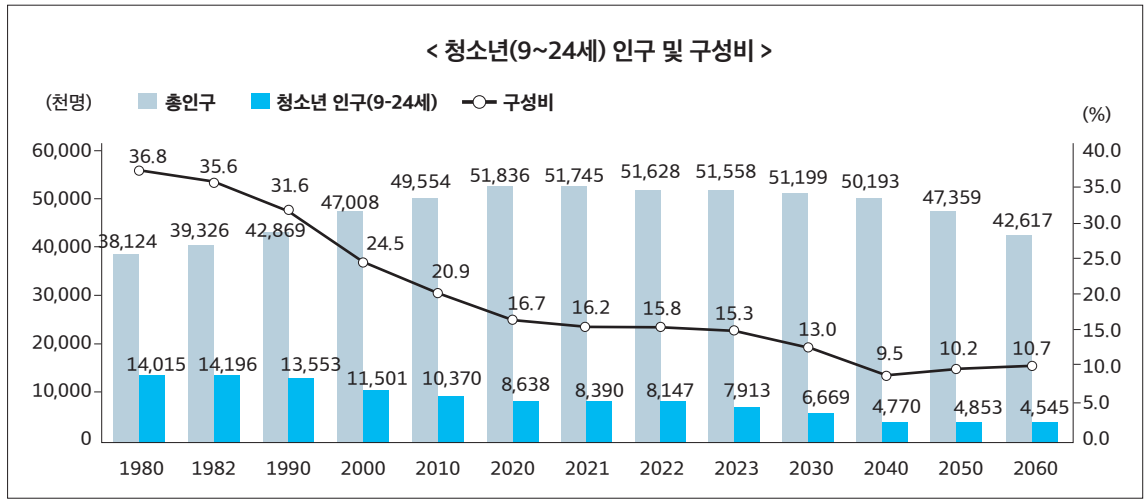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박물관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 인구, 청소년 교육 정책, 기술 환경, 공동체로 요구되는 박물관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1. 청소년 인구의 변화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 규모는 1980년 36.8%에서 2023년 15.3%으로 급감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060년에는 청소년 비중이 10.7%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제 7 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과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2021)」 등이 해당된다.

표1. 청소년(9-24세) 인구 및 인구 추이(2020-20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

(단위: 천명, %)

	총인구	청소년 인구 (9~24세) ¹⁾	구성비	남자	구성비 ²⁾	여자	구성비 ²⁾
1980	38,124	14,015	36.8	7,216	51.5	6,799	48.5
1982	39,326	14,209	36.1	7,322	51.5	6,887	48.5
1990	42,869	13,553	31.6	6,991	51.6	6,563	48.4
2000	47,008	11,501	24.5	5,987	52.1	5,514	47.9
2010	49,554	10,370	20.9	5,468	52.7	4,902	47.3
2020	51,781	8,542	16.5	4,448	52.1	4,094	47.9
2021	51,822	8,306	16.0	4,315	51.9	3,991	48.1
2030	51,927	6,543	12.6	3,362	51.4	3,181	48.6
2040	50,855	5,310	10.4	2,722	51.3	2,588	48.7
2050	47,745	5,235	11.0	2,685	51.3	2,550	48.7
2060	42,838	4,458	10.4	2,286	51.3	2,172	48.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청소년 기본법 기준에 따른 청소년 인구 | 2) 청소년 인구에 대한 각각의 구성비

전체 청소년 수는 감소하는 반면,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⁶은 ‘20년 코로나19로 일시적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규모와 비중 모두 지속 증가 추세이다. 청소년 인구 규모의 감소와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 young-carer)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 청소년이 대두되고 있다.⁷

6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하여 9-24년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초·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7호(2015)에 따르면 지원 대상(초·중·고교 학령기(9-17세)와 고교 졸업 나이(18-24세))은 2015년 기준 5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7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 관련부처합동 보고서, 4-5쪽

가정 밖 청소년(9-19세 가출신고 기준) (‘18) 24,384명→(‘21년) 23,133명→(‘22) 28,643명

다문화 학생(전체 대비 비율) (‘17) 109,387명(1.9%)→(‘21년) 160,058명(3.0%)→(‘22) 168,645명(3.2%)

3-2. 청소년 교육 정책의 변화

현재 청소년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6가지 핵심역량 -자기관리·지식정보처리·창의적 사고·심미적 감성·협력적 소통·공동체 역량-을 제시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비교하였을 때, 핵심역량별 수정된 몇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관리 역량에서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지식정보처리 역량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 탐구 활용’, 공동체 역량에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와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책임 있게 참여 하여야 함’이라고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6가지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수정되었고, 지향하는 역량에 대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존중과 경청’, ‘상호협력적 관계에서의 공동체 목적을 구현하는’이라고 구체화했다.

표2. 2015년과 2022년 개정과정 핵심역량 정의 비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정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정의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역량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역량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첫째, 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기초소양으로 교육 전반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이 중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및 다양한 교과 특성에 맞는 디지털 기초소양 반영 및 선택 과목 신설, 정보교육교육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 개인의 인격적 성장 지원과 한편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며, 그에 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과 연계하거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시간 등을 도입한다. 넷째, 학생 주도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도입, 상급 학교급(학년) 전환 시기 진로연계교육 도입 등 학교 급별 초중고 개정이 이뤄졌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 편성 영역 및 운영 시간 적정화(주제선택, 진로탐색 2개 영역, 102시간) 등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명시, 다양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 등 개정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⁸의 2027년 전 학년 전 과목으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올해

8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2022년 12월에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으로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

입학한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는 당장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3-3. 기술 환경의 변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는 용어는 Prensky(2001)의 논문에서 등장한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란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네이티브 개념⁹은 이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2022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2.) 마련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혁신을 추진을 예고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이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1) 포함되어 디지털 기반한 학습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가 전망된다. 청소년 디지털 교육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웠다. 유럽연합위원회의 디지털교육 실행 계획(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DEAP 2021-2027)¹⁰에서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13개 액션플랜을 수립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¹¹

- 유럽 청소년의 학습에서 디지털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유럽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하기
- 유럽 청소년의 데이터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선하기

프랑스 교육청청소년부는 ‘디지털 교육전략 2023-2027’에서 2027년까지 프랑스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발표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그 주체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디지털기업, 학생공동체, 교사공동체, 학부모공동체 모두로 설정하고, 이 주체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 국

9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을 활용하고, 관련 기기 사용에도 능숙한 세대

10 education.ec.europa.eu 참조

11 European Commission, 2020, 7쪽

민, 특히 프랑스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 교육전략 2023-2027에서 제시된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중앙정부, 지방정부, 디지털 기업, 교사공동체, 학생공동체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2. 청소년 디지털 역량의 핵심을 1) 디지털 시민성 2) 비판적 사고력 3)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분별력으로 설정하고, 모든 청소년이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특히 여성·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켜서 대학의 디지털 관련 전공으로 더욱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4. 청소년에게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성, 신뢰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5. 청소년 디지털 역량 사업에 투입되는 기기, 자원이 상호연동성을 높이도록 하고, 친환경적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 역량에 있어 여성과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있는 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화가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프랑스국립교육시스템센터의 ‘디지털과 학업’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콘텐츠를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맥락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청소년에게 제대로 계획되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을 넘어 사용 목적과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바로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디지털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중 51.8%가 디지털 기술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였다. 가구특성별로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들(56.0%)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들(57.0%)은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디지털 기술로 인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인식했다. 디지털과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 문화와 활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박물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정책적 요구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요구임을 말해 준다. 박물관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관점의 디지털 기반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3-4. 공동체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 변화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개정한 박물관(Museum)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¹²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전시 및 전달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영구적인 비영리 추구 기관이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접근하기 쉽고 포용적이며,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역사회의 참여로 운영되고 교육, 향유 및 지식 확장을 위해 다양한 관객 경험을 제공한다.

새롭게 정의된 박물관의 정의,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하고, 지역 사회로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박물관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박물관 역할이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역 사회(공동체)와 박물관은 지난 몇 년간 국제박물관협회의 주요한 화두였다.

12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4.12.26.)

IV. 박물관 청소년 교육 현황

보호자와 동반한 어린이, 교과와 연계한 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2000년 초기 박물관 교육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시작되었다. 박물관에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소속 포함)과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4-1. 국립박물관 청소년 교육 현황

먼저 국립박물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자. 국립중앙박물관 중장기발전방안(2023)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대상별 교육프로그램과 참여자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연계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수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나, 참여자 수는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수 대비 참여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 청소년 교육에서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현실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 학교에서는 150명 이상 학년 단위 체험이나 전환기 교육의 일환으로 박물관 방문을 계획하나 박물관에서는 활동의 의미와 운영의 한계로 대부분 150명 단체는 대면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표3.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수 및 참여자수(2022년 기준)

대상	세부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수	비율	참여자 수	비율
일반 시민	유아와 가족	22종607회	25.6%	104,852명	69.2%
	초중고등학생/청소년	22종355회	25.6%	9,418명	6.2%
	성인/노인/누구나	7종53회	8.1%	9,638명	6.4%
취약 계층	장애인/치매노인	2종20회	2.3%	251명	0.2%
	취약계층 학생	10종117회	11.6%	6,813명	4.5%
외국인	국내 외국인	5종209회	5.8%	10,214명	6.7%
	국외 외국인	2종5회	2.3%	306회	0.2%

매개자	박물관 학예인력	4종4회	4.7%	8,574명	5.7%
	교원	3종5회	3.5%	105회	0.1%
	전시 해설 인력 (전문 해설사, 청년멘토, 자원봉사자 등)	8종53회	9.3%	1,355명	0.9%
	공무원	1종1회	1.2%	38명	0.0%
합계		86종1,429회		151,544명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의 교수 유형은 강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대상별 교수방법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등 청소년 대상에게 강의, 행사, 원격교육의 교수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대상별 교수방법 현황(2022년 기준)

대상	세부대상	강의	행사	관외교육	원격교육
일반 시민	유아와 가족 (유아+초등학생)		●	●	●
	중고등 학생/청소년	●	●		●
	성인/노인	●			●
취약 계층	장애인/치매노인				●
	취약계층 학생	●		●	
외국인	국내 외국인				
	국외 외국인 (해외기관연계)				●
매개자	전문인력	●	●	●	●
	교사/교장교감/유치원장	●			
	대학원생/공무원/자원봉사자	●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원격교육, 학습자료의 경우 코로나 19로 초등 5학년 이상으로 전문직 체험교실, 보물을 찾아라, 고대 청동기 마음의 비밀, 조선비밀수사대 프로그램을 스튜디오 기반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였다(2022년 기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과과정 연계 교육과 일반 성인 대상 ‘박물관역사문화교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 교육 콘텐츠 통합 플랫폼 모두(MODU)¹³는 2022년 4월 오픈하고, 동영상 598건, 활동지 259건, 연구자료 등 기타 399건(2025년 5월 기준)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등 코로나19를 전환점으로 온라인 원격교육을 운영하고, 학습자료를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4-2. 청소년 직업체험·진로탐색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국립민속박물관은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2011년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시됨에 따라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운영하였다. 2019년부터는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원격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으로 2017년 기준 13곳 국립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직업체험, 진로탐색 교육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2017년 국립박물관 진로 직업 프로그램 현황

기관	교육명	대상	운영기간
국립중앙박물관	상반기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중·고등/단체	3-7월
	나의 미래, 박물관에서 그려보다!	중·고등/개인	6-11월
	하반기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중·고등/단체	8-12월
	여름방학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중·고등/개인	8.1.-8.4.
	겨울방학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중·고등/개인	2.13.-2.21.
국립경주박물관	똑똑!박물관 두드림(Do Dream)	중등/단체	9-11월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 큐레이터	중등/단체	4-12월
국립전주박물관	박물관 청소년 진로탐색 큐레이터	중·고등/단체	3-11월
국립부여박물관	청소년 박물관에서 꿈을 그리다!	중등/개인	3-11월
국립공주박물관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중등/개인	9-12월
국립진주박물관	박물관에서 꿈을 찾다	중등/개인	10-12월
국립청주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사람들	중·고등/단체	6-11월, 토요일
	박물관 문을 두드려요. 똑똑!!	중등/단체	학기중 금요일
국립대구박물관	청소년과 큐레이터의 만남	중등/단체	3-11월

13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플랫폼 모두 modu.museum.go.kr 참조

국립김해박물관	꿈꾸는 박물관	중등/개인	10-12월
국립제주박물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중·고등/단체	6-11월
	청소년, 박물관에서 꿈을 만나다	중·고등/단체	11-12월
국립춘천박물관	박물관에서 꿈을 찾다	중3고3/단체	11-12월
	박물관에서 상상날개 달기	중등/단체	8-12월 총 20회
국립나주박물관	박물관에서 찾은 나의 꿈	중·고등/단체	3-11월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에서 떠나는 세계여행Ⅱ	중등 동아리	4주 연속 운영
	자연이 주는 선물, 우리 옷 산책	중등/단체	학기 중
	일필휘지! 손끝으로 펼쳐는 예술, 문자도	청소년 동아리·개인	주말
	종횡무진! 박물관 속 숨겨진 보물찾기	청소년 동아리·개인	주말
	박물관, 학교와 만나다	중등/단체	8주 운영
	내 손안의 박물관	중1학년/학년단체	학기중

2017년 국립박물관 진로탐색·직업체험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26여 개의 프로그램에서 18개 프로그램이 중고등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박물관에서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큐레이터) 진로 이해와 보존과학(복원 체험 등), 전시기획 등 직업체험과 진로탐색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박물관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 등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 진로체험은 정책적으로도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자유학기(학년)제 도입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적으로도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진로 체험의 교육과정편성, 진로체험기관 인증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규정이 명문화 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진로 체험의 양적인 확대가 곧 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V. 나오며

미래 세대 청소년을 위한 공동체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Engage)

박물관은 무엇보다 소장품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현재의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일회성 교육 참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체험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확장해야 한다. 박물관에서 청소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모여, 운영 가능한 활동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운영 대상에 있어 가족 돌봄청(소)년 등 새로운 위기·취약 청소년 등을 포용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참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연계·교류(Connect)

박물관에서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지역사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사나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반 오픈소스, 콘텐츠, 플랫폼 등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반 혁신은 청소년 교육 정책의 큰 흐름이다. 박물관은 소장품과 관련한 전문성과 신뢰도 높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물관-청소년-학습-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교육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활용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정책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박물관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원·지지 받을 수 있도록 박물관도 이들 부처와 정책에 발맞춰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권한 강화(Empower)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박물관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활동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의미

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존중되고 지지될 수 있도록 박물관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박물관 역할은 박물관 안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와 지속적인 관계맺음으로 박물관은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지훈, 2018, 「역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박물관 교육 내러티브 실행 연구」, 한양대학교 박물관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강선주 외, 2020, 「박물관 온라인 역사 학습 자료 개발」, 국립중앙박물관
- 김지경 외,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니나 사이먼, 2015, 『참여적 박물관』, 연암서가
- 박한나, 2015,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박물관 교육 사례연구-국립전주박물관의 ‘박물관 창의교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령, 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 백혜정,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7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진선, 강인애, 최지혜, 2019, 「지역기반 박물관에서의 참여적 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박물관학보』 37, 한국박물관학회
- 이창호 외 2023,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현미 외, 2023,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 조희진, 2011, 「박물관-학교-지역 박물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활용 -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에서 배우는 사회교과(2003-2008)’를 중심으로-」, 조『민속학연구』 제28호
- 정희성, 2020, 「포용적 박물관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명림, 2018, 「자유학기제 교육 정책에 따른 박물관 교육의 변화와 탐색-국립민속박물관 청소년 교육이 설계 모형 개발-」, 『박물관학보』 35

[청소년 교육 정책 변화 속 박물관의 역할 모색]에 대한 토론문

조혜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박물관을 사회적·관계적 존재로 보는 시선, 즉 박물관을 존재 이유와 역할은 끊임없이 되묻고 쟁론화 해야 한다는 시각은 이제 기초적 전제가 된 듯합니다. 올해 세계박물관의 날 주제와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전체 주제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가 채택된 것은, 사회를 이루는 유동하는 공동체를 인지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박물관의 위치와 역할을 성찰하고 전망해야 할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김은영 선생님은 국내 청소년 공동체가 유동하는 속도와 방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교육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며,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이 가져야 할 위치와 역할을 논의해 주셨습니다. 발표문에서 보여주셨듯, 청소년 범주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은 감소하지만, 그러한 연령대의 삶은 오히려 단 몇 가지 유형으로 환원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개념이 생겨날 정도로, 소위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서 능숙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교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자유학기제에 고교학점제까지 도입되면서 교육 생태계도 더욱 다층화되고 있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새삼 현실

을 되돌아보니, 청소년을 위해서 혹은 청소년과 함께 박물관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한참 동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급변하는 ‘청소년 공동체’와 박물관의 관계에 관한 공리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의 발표문에 따르면, 공교육 제도를 이수하지 않는 학령기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확인됩니다. 그에 반해, 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현행 국립박물관의 교육은 대부분 학교를 매개로 홍보되고 모집,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박물관 교육 방향성으로 제안하신 ‘참여(engage)’와 포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교육 제도에서 자·타의로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나’와 ‘청소년 공동체’, 넓게는 ‘지역 공동체’와의 자발적인 관계 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박물관 역할 수행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활동 방안을, ‘에듀-큐레이션(edu-curation)’ 형태이든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 형태이든, 공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청소년 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정당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살펴보신 실제 운영 사례 중에서, 청소년의 ‘참여’ 유도의 성공 요인과 한계 요인을 포착하는 것이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박물관 교육과 운영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도 여쭙습니다. 표면적인 운영 현황으로는 살피기 어려운 측면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느끼신 선생님의 고민과 견해를 나눠주십사 요청드립니다.

2. 학교 연계·교류(connect)와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이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를 바탕에 두고, (변화 잠재성을 지닌) 현행 교육과정과 어떻게 결을 같이 혹은 따로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박물관 역할 모색에 핵심 사항

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듯,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평가 체계도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 교육이 가질 만한 강점으로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도 그것을 보완하거나 넘어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디지털 활용이 ‘연계’를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함정을 피하면서, 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박물관에서의 디지털 혁신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지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3. 선생님께서 결론에서 제시하신 ‘참여(engage)’, ‘연계·교류(connect)’, ‘권한 강화(empower)’는, 많은 연구자도 지적하듯, 미래 박물관이 채택해야 할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청소년 교육 정책의 기초 역시 포용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을 포함해, 참여, 연계/연대, 주체성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장려하고 실현하는 공간이 ‘왜 하필 박물관이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즉, 청소년 공동체를 위한 혹은 청소년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목표를 성취해 가는 데, 다른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닌 박물관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큰 질문이자 논쟁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 유형의 문화·교육 기관 중에서 특별히 박물관이 청소년 교육과 참여의 플랫폼으로서 가지는 고유한 잠재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박물관이 참여와 공동체 형성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할 때 직면하는 정체성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넘어서는 ‘징검다리’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는 발표문 2쪽과 관련해, 박물관이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데서 기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공동체를 중심으로 박물관의 위치와 역할을 심도있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자의 소임은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한 명의 연구자로서 ‘미래를 바꾸는 힘’, 박물관 교육 연구와 학술 논의에 발을 들일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발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할과 의미 찾기

박에스더 | 목일중학교 교사

2025 한국 박물관 교육학회
공동체 변화속 미래를 바꾸는 힘, 박물관 교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교육의 역할과 의미 찾기

박에스더 (목일중, 전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들어가기 전

설명

오늘도 캄부림이다. 대림동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범죄의 모든 것 | 한국 경찰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인들의 난동 | 사선에서 | #골라들다큐

1만 1,317,164 4월 13일

골라들다큐

“한국 경찰 인우선다”

경찰입니다! 해대니! 칼부터 꺼낸 조선족 결말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주류 사회가 허락한 공공의 메시지는 국내 이주배경 이주아동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이주민은 소수의 너그러운 시민들이 보호해야 하는 시혜 대상으로 존재해야 하는것일까?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 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03 현대의 바람이 불어오는 박물관이 되려면 (제언)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1. 이주배경학생의 현황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단위: 명)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67,806	48,225	12,506	6,734
2015	82,536	60,162	13,827	8,146
2016	99,186	73,972	15,080	9,816
2017	109,387	82,783	15,945	10,334
2018	122,212	93,027	18,068	10,688
2019	137,225	103,881	21,693	11,234
2020	147,378	107,694	26,773	12,478
2021	160,058	111,371	33,950	14,308
2022	168,645	111,640	39,714	16,744
2023	181,178	115,639	43,698	21,190
2024	193,814	117,459	47,910	27,673

2014년
48,225명이었던
초등학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 수

vs

2024년,
10년 전 초등학교
재학 학생 수 보다
여전히 적은 숫자의
중학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 수

출처: 2024 교육기본통계조사 발표자료

32

33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1. 이주배경학생의 현황

연도	다문화 학생	미국출생	중국출생	일본출생	한국인 가정	중국·미국·일본	증가율
2020년	4,250	2,917	546	787	-	-	0.0
2021년	4,892	3,211	577	1,104	-	-	0.3
2022년	5,644	3,584	669	1,391	-	-	0.5
2023년	6,773	4,476	652	1,645	-	-	0.7
2024년	8,668	5,805	835	2,028	-	-	1.1

출처: (이슈브리프)이주배경 직업계 고등학생 취업 연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이민정책연구원(2024)

최근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중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증가 추세

국내 출생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외국인 가정, 난민, 재외동포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주배경을
가진 한국어가 서툰거나
한국문화가 낯선 학생 증가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2. 국가 정책 기조의 변화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주요 정책 및 기대 효과 >

- ①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
- ②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 ③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 ④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 (기대효과)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을 통해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갈등 예방

국내에서 교육받은 이주배경학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구직(D-10), 취업비자(E-7 등) 전환가능,
가족동반 필요시 방문동거(F-1) 등의
체류 자격부여 예정

그 대상 요건도, 변경 또는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사회통합 및 갈등 방지 중요해짐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4.9.26)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1. 이주배경학생의 현황

출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방안(2025,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급증

* 전교생 100명 이상의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이상을 의미

* 학교 중에서는 50%이상~70%
초밀집 학교도 다수이며,
30%이하의 학교 중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 안 이주배경국가가 10~30개 이상인
학교도 다수 존재

* 중고등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100%인
각종학교, 외국인 유학생 초청 고등학교등 존재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3. 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이주민 통합 정책 지수

출처: <https://www.mipex.eu/sites/default/files/downloads/pdf/files/a5/mipex-2020-book-a5.pdf>

한국은 이주배경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재
(현재, 초중등교육법 상에 권리 보장)
그러나 사회적 차별 큼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MIPEX)는 영국을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스,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기타 유럽 국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 국가,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북미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세아니아의 호주 및 뉴질랜드 등 6개 대륙의 국가에서 이민자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측정하는 독특한 도구임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4. 포용정책과 현실의 간극

경북대, 학사-인턴 원스톱 지원...외국인학생 13년만에 12배 증가

정규과정 등 1500여명 열공 중 유학생 관리인문대학에 선정
국내 학생들도 함께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국제적 감각 길러


출처: 영남일보, 2023.3.19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50309.01019081926000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속 별별이야기' <https://blog.naver.com/nhrck/223111349784>

입학 외 인원으로 대학 재정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지방 대학 증가
vs 무슬림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도시설에 '국민이 먼저'라고 외치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1. 좋은 기획이라고 해도, 시민이 전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출처: 서울시립미술관 '보이지 않는 사람들' (2014)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1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5. 이주배경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 => 다문화교육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다
무조건 이해해서 나의 것을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교육도 아니다
누구나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가 될 수 있기에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 중요!

(학교안) 선주민과 같은 비율이거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밀집학교 안 '이주배경 학생'


장애를 가진 성인 남성, 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 선진국 출신 흑인 이주민, 성소수자인 고학력 전문직, 사회적 관계가 전무해 돌봄이 필요한 연금생활자, 비자발적 1인 가구, 가족관계가 좋은 난민, 사회적 재난 혹은 자살 한국인 유가족,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를 믿는 부유한 가정,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평균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가진 한부모 가정 등

=> 한가지 이미지로 고정관념화 x => 부분은 전체가 아니며, **모두의 공존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2. 좋은 기획일수록, 좋은 해설자와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어둠 속의 대화, 오감으로 세상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목소리의 힘
시각장애인 해설자로 인해 비장애인이 교육활동 후 권력관계의 역전을 긍정적으로 경험

출처: 어둠속의 대화 <http://www.dialogueinthedark.co.kr>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참고) 다문화사회 박물관의 문화다양성 교육 실천에 관한 질적 연구(2014. 김정아, 한양대)

첫째, 초기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장하면서 '문화다양성교육'이란 용어로 전환하였다.

둘째, 문화다양성교육 내용은 박물관의 특성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지만, 주로 전시나 프로그램을 통해 타 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다양성교육을 박물관 전체의 정책이나 시스템으로 구현하기보다, 교육담당자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실행하고 있었고, 교육자들의 인식수준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넷째, 실행된 프로그램은 주로 놀이, 스토리, 토론, 표현 등을 활용하여 지식전달 보다는 친밀감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0년 전의 연구와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4. 박물관 다양성 교육이 '다문화 가족 & 다문화 배경 국가의 이해'를 넘어서려면



국립민속박물관

몽골꾸러미 어린이와 학교 ④ 자료목록

연번	사진	자료명	수량	비고
1		초등학생 교복 (남녀 교복 세트)	2	① 남자 교복 세트 ② 여자 교복 세트 ③ 여학생 교복 세트 ④ 여학생 교복 세트
2		백종원 티셔츠 세트 (체육복 상·하의 세트)	2	① 남자 체육복 세트 ② 여자 체육복 세트
3		소학지인 종초 (책가방)	1	
4		무제 꼬리 지붕 (장난감)	1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3. 박물관 다양성 교육이 '이색체험'을 넘어서려면

2025 박물관 속 문화행사



박물관 속 무용 <국립경주...>

2025.11.07(금) - 2025.11.07(금)

상세보기

2025 박물관 속 문화행사



박물관 속 무용 <국립제주...>

2025.11.01(토) - 2025.11.01(토)

상세보기

문화행사



박물관문화향연 <양방언>

2025.10.25(토) - 2025.10.25(토)

상세보기

2025 박물관 속 문화행사



박물관 속 무용 <국립춘천...>

2025.10.25(토) - 2025.10.25(토)

상세보기

출처: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다양성 지표 체크

* 고려대 다양성 보고서

1) 개방성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조직인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조직인가?)

2) 포용성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가?)

3) 형평성 (구성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한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가?)

* 서울대 다양성 보고서

- 외국인 학생 출신 국가, 다양성 임용, 주요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 (성별비율), 국제화현황, 장애인 등록수 등

-> 구조적 다양성 (다양한 인구 집단의 사회학적 구성비 확충)

*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 민족, 인종, 국적 / 종교, 정치적 견해 / 장애 / 성별 / 성적지향, 성정체성 / 세대 / 출신, 지역 /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서울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 학습과정에서의 포용성과 형평성"

참고: 고려대학교 다양성 보고서 (2019),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2019)

38

39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분석(2020~2024)

1)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 존중

-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존재하는가? '누구에게나 열린 조직인가?'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가 가능한가?'

- 학생 : 다문화언어 강사 (66명), 이중언어교실 강사(16개국, 108명), 심리정서 상담 (60명) ※고용형태 한계 존재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강사 다양화 (재외동포, 난민, 이주배경 선배 등)
※ 2020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실_미얀마), 2022년 (진로캠프), 2023년 (진로캠프, 멘토링, 이중언어)

- 교원 : 문화다양성 교원 연수, 교원학습 공동체, 글로벌 다문화세계시민교원 워크숍 강사 다양화
※장애인(2), 난민(3),성소수자(1), 결혼 이민가정 학생 보호자(4), 외국인노동자(1), 재외동포(1)
※이주민 배경국가 사회현안 관련 워크숍(미얀마, 우크라이나, 시리아,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등)
※이주민 밀집지역 교원 교류 (일본 요코하마)
※장애교원을 위한 문자통역 제공

- 보호자 : 다양한 학생 보호자 소통모임 (이민정책연구원 연계) ※ 6개국(2022)

- 지역사회 : 지역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7팀 운영)

참고: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020~2024)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분석(2020~2024)

3) 학습과정에서의 형평성

구분	2019				2020				2021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학업중단률(%)	1.76	1.62	1.72	3.00	1.07	0.98	0.85	2.05	1.41	1.29	1.38	2.26
학업중단인원(명)	316	212	54	50	196	128	29	39	274	169	56	49

- 서울지역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전체 학생 대비 0.2~0.3% 높은 편

- 원활한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학업 중단 예방 필요

- 공교육 진입과정에서의 1:1 지원 (다문화코디네이터) / 다중위기 학생 통합사례관리

- 서울형 예비 한국어교실 (한빛마중교실) *초등, 중등 2개 학급 운영 / 1개소(2020) -> 4개소 (2023)

- 방과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여름방학/겨울방학 집중한국어교실) *수준별, 온라인/대면 운영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중 쉬지 않고 운영, 확대 운영 필요

※(본청) 다문화특별학급(27학급), 한국어(KSL)강좌, 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어강좌, 학습 멘토링(152명) 등 운영

참고: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020~2024)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분석(2020~2024)

2) 학습과정에서의 포용성

-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자료개발

- 학생 : 다양한 배경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진로체험 오디션, 어울림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동아리 센터 체험 다문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교실, 이중언어 그림책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 2023 센터 이용수 2,770명 (7월 기준) / 셔틀버스 운행(2022~)

- 교원 : 모든 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자료 개발(미얀마, 2020) ※다문화특별학급, 특수학급 포함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자료 개발(7종, 2021) ※다문화특별학급, 특수학급 포함
이주민 배경국가 사회현안 교육, 반편견 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 (2020~2023)

- 보호자 : 학생 보호자 온라인 아카데미 (2020~2023, 연간 3회) ※영, 베, 중 번역
학생 보호자 교육정보지 (2022,2023) ※16개 언어
학교(교육청) 공문서, 교육자료 번역 (13개 언어)
센터 홈페이지 번역 (10개 언어)

참고: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020~2024)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다양성 교육' ex. 서로다른 문화권에 대한 인식 전환

언어는 존재의 집

이름 :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가 마음을 비운다 난민 아동들에게
비난 건물이 아닌 기쁨을 선사한다 다문화교류 활동에 동참합니다.

인권을 비간섭의 자유이다

우리는 18세기부터 인권에 관하여

خوف الإنسان

아름다운 한글을 찾아서
멋진 단어를 만들어보세요!

“진로들과 신나게 놀면서 배우고, 즐기고, 익히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진로’에 모든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이 활동은 학습과 배움을, 나아가 교육의 본질입니다.

낯설게하기

"어디에 서서 찍는가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져요!"

HD FPS 25

REC

01:35:57

<교실 중앙에서 바라보기>

HD FPS 25

REC

04:03:57

<교실 가장자리에서 바라보기>

출처: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40

41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다양성 교육' ex. 다양성을 사회적 권력관계로 해석

움직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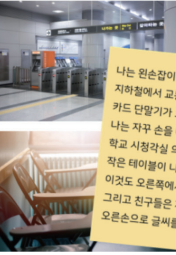
"햄버거 주문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 기계가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노인, 어린이 등
- (한글) 메뉴를 읽을 수 없다면? 시각장애인, 외국인 사용자 등
- 키오스크가 닿지 않는 높이에 있다면? 휠체어 탑승자, 어린이 등
- 카드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분실 등
-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건, 종교적 이유, 건강 상의 이유 등

움직여보기

우리의 일상 속 가장자리는?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일상 속 가장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나는 왼손잡이다.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찍을 때 카드 단말기가 오른쪽에 있어서 나는 자주 손을 바꿔야 했다. 학교 시청각실 의자손잡이를 열면 작은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른쪽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친구들은 자주 나한테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보라고 한다.

<역사>

다른 사람들에게겐 당연한데, 나에게도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 있다면?

나에게는 편하고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시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처: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다양성 교육' ex. 이주배경 학생 밀집지역 사례





중간자 역할(도슨트)의 중요성 및 관계의 역전 (이주민 당사자의 교육)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다양성 교육' ex. 이주배경 스펙트럼의 확대 (재외동포까지)

활동 2


우리는 누구나 집을 떠난다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1.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파친코'의 첫 대사입니다. 소설은 재주도, 일본을 오고가는 재일 조선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해외에서 드라마로 제작되고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들별로 다음 지역 중에 하나를 골라 한인들의 해외 이주 배경을 조사해봅시다.
[① 일본 ② 중국 ③ CIS국가 ④ 중남미 ⑤ 독일 ⑥ 베트남 ⑦ 미국]

- 우리 모들이 선택한 지역:
- 한인들의 해외 이주 배경:
- 해외 한인들이 후손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나요?
- 해당 지역에서 정착을 위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과 우리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



경북 봉화에 있는 임진왜란 당시 19세 의병을 기리는 충효당 왜, 베트남의 국화인 연꽃이 새겨져있을까?

출처: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다양성 교육' ex. 지역 탐방 + 지역 박물관 교육







학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보기, 국내외 밀집지역 교육 현장 방문 및 교류, 이민사 박물관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다양성 교육' ex. 지역 탐방 + 지역 미술관 교육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지역 탐방 (아트필드 갤러리 + 힐링포레스트 체험교육)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박물관 문화다양성 교육의 새로운 시도 '한성 백제 박물관'



* 주제 : 백제와 함께하는 이웃나라들

* 내용

백제가 주변 이웃나라들과 어떻게 교류하였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갔는지 탐구

- 해양강국 백제가 주변 국가와 긴밀하게 전개하였던 교섭과 교류의 역사 알아보고, 구슬팔찌 만들기 체험
- 관련 유튜브, 누리집 홍보, 온라인 교육 등의 시도

출처: 한성백제박물관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사례) 문다세 네트워크 '움직이는 기억의 정원'



리밍웨이 '움직이는 정원' (2014, 국립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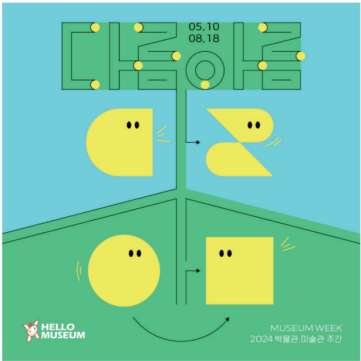
<움직이는 정원> 전시에서 착안하여, 2021년 이후부터 문다세 네트워크 소속교사들이 4월이 되면 진행되는 움직이는 전시 미안마의 봄을 기원하며, 세월호 이후 모든 존재의 안녕을 기원하며, 일상의 다양한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체험형 교육 진행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2 전시연계 다양성 교육 사례

박물관 문화다양성 교육의 새로운 시도 '헬로우 뮤지엄 어린이 미술관'



* 주제 : 다름아름

* 내용

- 이주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 전시 연계 세미나 (역사, 미술,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간 연결)
- 생물 다양성, 문화다양성 모두를 아우르는 전시
- 다양성 도슨트의 해설

출처: 한성백제박물관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3 제언

참고) 다문화사회 박물관의 문화다양성 교육 실천에 관한 질적 연구(2014. 김정아, 한양대)

첫째, 전시와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미션이나 정책, 기준 제정 등 박물관 전체 환경을 문화다양성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육자들이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실천의지를 지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문화다양성교육 내용을 민족이나 나라의 개념을 넘어서 지역, 세대, 계층, 성별 문화의 다양성까지 확장해서 생각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의 증진, 편견의 배제, 문화간 소통, 교육기회의 평등 등 문화다양성의 내용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문화다양성교육 방법 면에 있어서, 다양한 관람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과 소통능력을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유효한 정책적 제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누군가가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나의 자리가 '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언제나 있어왔고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일에서 부터

2025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03 제언

<환대의 바람이 불어오는 박물관 교육>이 되려면

- 단일민족 신화에서 확장하여,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세계를 환대해야 한다.
특히 내국인 대상 교육이라고 해도 의사 소통이 어려운 어떤 이주배경학생들이 언어, 장애, 정체성 등으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기획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학생을 고정된 이미지, 시혜적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
- 수많은 이주배경학생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 속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주의 역사를 인식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상호문화주의적 차원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 창조되었던 많은 문화를 다양한 전시기획시 반영해야 한다.
(구색맞추기식의 일회성 팝업 형태 전시 지양)
- 박물관 차원의 다양성 지표를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ex. 영화(백델테스트)
1) It has to have at least two [named] women in it
2) Who talk to each other 3) About something besides a man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박물관 교육의 역할과 의미 찾기]에 대한 토론문

강선주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정도 이주배경학생과 함께 하는 박물관교육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서 올해 3월에 학술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이주배경학생 내의 다양성과 이주배경학생은 물론 비이주배경학생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수의 박물관이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상호문화교육 등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적응’은 ‘동화’와 다른 의미이죠. 박물관에서는 여전히 이주민, 특히 이주배경학생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박에스더 선생님의 발표가 박물관이 새로운 시각에서 이주배경학생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선생님의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나 다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부모가 이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는 없죠. 정체성, 언어 능력, 그들

이 준거로 하는 규범적 문화, 한국 사회에 적응 정도 등 여러 면에서 그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필요한 교육적 지원도 다릅니다. 그들 내의 다양성이 있는 만큼 학습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에서 다하지 못한 말씀이 있을 듯하여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주배경학생의 공통적인 특징과 그리고 서로 다른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른 특징은 어떤 범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각각의 범주의 다양성을 지닌 이주배경학생에게 각각 꼭 필요한 교육, 학교에서는 해줄 수 없는 데 박물관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선생님께서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다양성 교육의 몇몇 사례를 소개하시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모두를 위한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하십니까. 그것을 박물관도 취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일까요? ppt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와 박물관은 모두 교육을 하지만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지죠. 그 프로그램이 박물관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셋째, 선생님께서는 한성백제박물관의 사례를 들면서 이주의 역사를 가르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이주배경학생 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공부해보면서 이주배경학생 내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주의 역사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전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이주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그들의 다중정체성을 지원하는 방향이고 두 문화에 모두 통합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주배경학생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주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유했는지 경험이 있으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박물관 교육의 미래 역할 탐색

고유나 | 인천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해경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I. 서론

최근 저출산·고령화라는 키워드가 기사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결혼관, 가족관, 개인의 인생관이 달라진 결과로 바라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폭발적인 인구 성장인 ‘베이비붐’ 현상이 있었지만, 196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인 저출산 단계에 도입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초저출산 단계에 머물고 있다(김두섭, 2010, p. 15). 1970년대 국가 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한지 50년 남짓 지난 현재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변했으며 이에 맞추어 가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고군분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90년 1.5명, 2013년 1.22명을 거쳐(홍승아, 2014), 2023년에는 0.72명으로 축소되었다(김효정, 2024. 5. 8.). 인구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이 2.1명인데 1983년 출생률이 2.06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축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위키백과, n.d.). 출산율 저하는 태어나는 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신생아의 수가 가장 많고 고령인구의 수가 가장 적은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고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2010년대 중반에는 중장년층의 인구수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형태를 보이며, 현재는 50대 중반부터 70대까지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깔대기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다(UN, 2024).

이러한 출산율과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출산율이 높았던 나라조차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복잡적이지만 주로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고용률 상승, 양육비의 증가, 성 평등과 같은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UN, 2021).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위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에 의한 영향도 있다. 혼인율 감소 및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 감소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출산·육아와 일의 양립 문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고용 및 주거 불안정 등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재, 2023).

과거와 같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는 스스로 자란다는 생각으로 출산을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에 앞서 태어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저하와 이에 따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아이를 원하지만 잘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McDonald(2002: 김영재, 2023, p. 177에서 재인용)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금전적 인센티브,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변화로 분류했다. 금전적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 대안에는 교육 서비스 무상공급 및 보조금 지원이 있고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보육서비스 무상 제공 또는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 대안들은 보육 및 교육 기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수집,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의 역할에서 교육적 기능의 비중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을 때 박물관이 갖고 있는 교육적 기능은 저출산 시대에 형식교육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McDonald의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변화에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박물관이 아동과 가족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 저출산 시대에 또 다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적 지원 항목 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취업모와 비취업모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다는 점도 박물관과 관련 있을 것이다(김영미, 조윤경, 2018, p. 162). 박물관은 전시물을 통한 직접적 체험의 공간이며 그중에서도 어린이박물관은 체험형 전시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정리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교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박물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양육자들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체험형 전시물과 프로그램의 비중이 다른 박물관보다 높은 어린이 박물관에 집중했다. 2023년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것은 어린이 박물관을 포함해 다른 박물관에도 폭 넓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유아의 특성 및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에서 정의하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한다. 유아기는 아동 발달의 중요한 기초가 형성되는 단계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전인적인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유아는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발달을 실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달심리학자 피아제(Piaget)는 구성주의 관점에 따라 유아는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간다고 보았다. 브루너(Bruner)는 어린이의 아이디어와 사고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며, 놀이가 이를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신화식 외, 2006, p. 4에서 재인용). 프로벨(Froebel)은 어린이는 활동적 놀이를 통해 학습한다고 주장하였고, 비고츠키(Vygotsky)는 놀이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할 수 있으므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신화식 외, 2006, p. 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경험과 놀이는 세상과 교류하며 배우고 성장해 가는 수단이며,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는 경험과 놀이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거나, 협력, 의사소통, 갈등 해결 등의 사회적 기술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색하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유아기의 경험과 놀이는 국가 수준에서 마련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하 개정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적 비전을 담고 있으며, 유아기 특성을 고려한 교육목적, 유아교육의 가치, 유아

기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과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 등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총론(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에서는 <표II-1>처럼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고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도록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아의 놀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며,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풍부한 놀이 환경과 자료를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가 또래 유아나 교사와 같은 성인, 다양한 주변 환경 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5가지 영역의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개별 유아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놀이 방식을 찾고,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놀이와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일과를 운영해야 함을 강조한다.

표 II-1.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III. 누리과정 운영 - 2. 교수·학습

교수·학습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내용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5개 영역의 명칭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구성된다. 5개 영역은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유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단정지어 이해하지 않기 위함이며, 유아가 자신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놀이하며 배우는 경험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5개 영역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유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놀이의 경우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5개 영역의 통합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 -1. 「2019 개정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목표 및 내용 범주

영역	목표	내용 범주
신체운동·건강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사회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가지기
예술경험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 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III. 국립어린이박물관 소개

세계어린이박물관협회(ACM : 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에 따르면 어린이박물관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는 전시물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필요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교육 및 문화기관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가 배움에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1995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된 ‘삼성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어린이박물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놀이와 체험형 전시의 형태를 띠고 있던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1990년대 후반 국내의 국립박물관에 영향을 주었다(장화정, 2019). 이는 국립박물관들의 어린이체험실 확충과 개편으로 이어졌으며, 어린이박물관의 설립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박물관이 설립되고 운영되었지만 국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박물관의 대부분은 모계박물관에 소속된 부설형 어린이박물관의 형태가 다수를 이뤘으며, 독립적인 형태로 설립된 어린이박물관은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립으로 운영되는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게 되면서 국내 최초의 독립형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립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의 5개 박물관 중 처음으로 개관한 박물관이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모든 어린이와 가족들이 박물관에 즐겁게 방문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학습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을 가진 문화공간으로 소개된다(국립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2025. 4. 14.).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건립 예정인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의 주제와 콘텐츠가 반영되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재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IV.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 분석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전시물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 단체, 모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은 영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폭넓은 연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각 연령에 따라 발달 수준이나 교육내용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기는 아동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전인적인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 수준에 해당하는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 수준과 유아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정 누리과정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하여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기준의 근거는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교수·학습’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서 추출하였다.

놀이와 경험이 가능한가? (놀이 중심)

또래, 성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가? 혼자서 활동하는가? (상호작용 형식)

누리과정 5개 영역 중 어디와 관련이 깊은가? (영역 별 분포)

유아가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가? (유아 중심)

현재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는 1개의 기획전시와 7개의 상설전시를 모두 통틀어 총 8개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국립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2025. 4. 14.). 본 연구에서는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중 유아 수준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별 기준은 체험전시물을 운영하고 있는 전시 중에서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상’을 참고하여 유아 수준 전시를 선정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홈페이지에 명시된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유아 수준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먼저 유아 수준에 해당하는 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는 <지구마을놀이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알아보고 도시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도시디자인놀이터>, 옛날 사람들이 널리 즐기고 사랑한 민화에 대해 알아보는 <우리문화놀이터> 총 3가지로 판단되었다. 또한 3가지의 전시 속 체험전시물 중에서 유아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전시물 15가지를 임의로 선별하였으며, 그 목록은 <표 IV-1>로 정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유아 수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길쭉길쭉 클레이하우스>, <타박타박 문화여행>, <한들한들 바람세상>, <내 마음은 풀 Full>, <초록초록 비밀정원>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표 IV-2>로 정리하였다.

체험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 분석표에 나타난 우측의 번호(1,2,3,4)는 분석 기준을 대표하는 번호이며, 기호는 분석 기준에 따라 가능(○), 불가능(×), 판단보류(△)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표 IV-1.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유아 수준 체험전시물 분석표

전시명	전시물		내용	1	2	3	4
지구 마을 놀이터		증기기관차	증기 기관차를 움직이는 활동	○	○	○	○
		살랑살랑 바람 연주	바람의 흐름으로 차임벨을 움직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활동	○	○	○	○
		바람 얼굴	바람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는 활동	○	○	○	○
		위로 날려요	밑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의 힘을 이용해 물체를 날려보고, 위로 날아간 물체를 관찰하면서 바람의 힘을 느껴보는 활동	○	○	○	○
		또르르 골드버그	골드버그 장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하여 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	○	○	○	○
		지구와 나를 연결해요	자석 축을 쇠기둥에 부착하고 색 조각들로 모빌을 만들어 균형을 알아보는 활동	○	○	○	○
도시 디자인 놀이터		어디에서 살까요?	원하는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터치하여 도시를 만드는 활동	○	○	○	○
		에너지를 공급해요	제자리 달리기를 통해 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체활동	○	○	○	○
		도시를 알록달록 색칠하며 꾸며봐요	색칠하고 싶은 모형을 골라 모니터 옆 동그라미에 올려둔 후 모니터에 나타난 그림을 색칠하고 꾸며보는 활동	○	○	○	○
우리 문화 놀이터		우스꽝스러운 호랑이, 의기양양한 까치	나만의 호작도를 만들어보는 활동	○	○	○	○
		민화, 세 컷 웹툰	민화에 등장하는 친구들과 함께 세 컷 웹툰 만들기 활동	○	○	○	○
		모두가 즐긴 책가도	디지털 책가도를 완성하고 앞 화면에서 내가 만든 책가도를 감상하는 활동	○	○	○	○
		민화 분장실	동물 옷을 입고 민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활동	○	○	○	○
		배와 배를 이어 만든 다리	디지털 화면을 활용하여 배와 배를 이어 배다리를 건너보는 활동	○	○	○	○
		조선휴게소	다양한 블록과 음식 모형을 가지고 조선시대 주막을 꾸며보는 활동	○	○	○	○

○ : 가능, × : 불가능, △ : 판단보류

1. 놀이와 경험이 가능한가? (놀이 중심)
2. 또래, 성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가? (상호작용 형식)
3. 누리과정 5개 영역과 관련이 있는가? 어디와 관련이 깊은가? (영역 별 분포)
4. 유아가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가? (유아 중심)

각각의 체험전시물을 4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 ‘놀이와 경험이 가능한가?’의 경우 모든 체험전시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체험전시는 관람자가 오감을 활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을 통해 전시물과 상호작용하는 전시를 의미하는데, 어린이박물관의 경우 대부분의 전시가 체험형 전시로 구성되어 있고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유아 수준 전시물의 경우에도 체험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아가 놀이와 경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기준 ‘또래, 성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가?’의 경우 15개의 체험전시물 모두 상호작용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증기기관차>와 <민화분장실>, <조선휴게소> 체험전시물에서는 다양한 대상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증기기관차> 전시물의 경우 공간마다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민화분장실>과 <조선휴게소>의 경우 또래 및 성인과 역할극이 가능하여 다른 전시물에 비해 더 많은 상호작용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외에는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거나, 전시물과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더 다양한 대상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체험전시물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 기준 ‘누리과정 5개 영역과 관련이 있는가? 어디와 관련이 깊은가?’의 경우 각각의 체험전시물이 모두 누리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신체운동·건강’에 해당하는 전시물은 <위로 날려요>, <어디에서 살까요?>, <에너지를 공급해요>, <조선휴게소>가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모두 신체를 활용하여 체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었다.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체험전시물은 <증기기관차>, <민화분장실>, <조선휴게소>가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모두 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전시이기 때문이다. 단, 유아 수준의 체험전시물 중에는 책이나 구체적인 스토리를 듣고 이해하

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시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관계’에는 <어디에서 살까요?>, 우리문화놀이터에 해당하는 모든 전시물이 포함된다. <어디에서 살까요?>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문화놀이터의 체험전시물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술경험’에 해당하는 전시물은 <살랑살랑 바람연주>, <도시를 알록달록 색칠하며 꾸며봐요>, <우스꽝스러운 호랑이, 의기양양한 까치>, <민화, 세컷 웹툰>, <모두가 즐긴 책가도>으로 판단하였다. <살랑살랑 바람연주>의 경우 음악이라는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도시를 알록달록 색칠하여 꾸며봐요>는 그림을 색칠하고 꾸며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전시물의 경우 각각 호작도, 민화, 책가도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한 주제를 담은 체험으로서 ‘예술경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탐구’에 해당하는 전시물은 <바람 얼굴>, <위로 날려요>, <또르르 골드버그>, <지구와 나를 연결해요>이다. 이 세 가지 전시물은 모두 바람, 기울기, 균형이라는 자연 및 수학·과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실험하고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활동으로 판단하였다.

네 번째 기준 ‘유아가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가?’의 경우 15가지의 체험전시물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체험전시의 특징은 특정 공간 안에서 관람자가 능동적으로 전시물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람자는 본인의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체험전시물을 선택하며, 이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물은 체험공간 안에서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네 번째 기준에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V-2.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유아 수준 교육 프로그램 분석표

프로그램 명	교육대상	내 용	1	2	3	4
길쭉길쭉 클레이 하우스	6~10세 어린이 단체	길쭉한 라인 클레이를 꼬고 말고 붙이며 내가 살고 싶은 꿈의 집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	○	○	○	×
타박타박 문화 여행	6세~초등생 동반 가족	세계 여러 나라의 주거문화를 비롯한 생활 양식 및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다양성 이해를 높이는 연속 교육 프로그램	△	○	○	×
한들한들 바람세상	어린이 동반 가족	지구마을놀이터 ‘바람 놀이’ 전시와 연계하여, 바람을 주제로 예술창작 또는 과학실험 활동을 제공하는 자율참여형 교육프 로그램	○	○	○	×
내 마음은 풀 Full	어린이 동반 가족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와 연계한 자율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	○	○	×
초록초록 비밀정원	어린이 동반 가족	‘절기’를 기본 테마로 촉각, 후각, 시각을 활용하여 자연을 감각적으로 느껴보고, 생태 감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여보는 교육 프로그램	○	○	○	○

○ : 가능, × : 불가능, △ : 판단보류

1. 놀이와 경험이 가능한가? (놀이 중심)
2. 또래, 성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가? (상호작용 형식)
3. 누리과정 5개 영역과 관련이 있는가? 어디와 관련이 깊은가? (영역 별 분포)
4. 유아가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가? (유아 중심)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을 4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 ‘놀이와 경험이 가능한가?’의 경우 <길쭉길쭉 클레이 하우스>, <한들한들 바람세상>, <초록초록 비밀정원>은 가능하지만, <타박타박 문화여행>과 <내 마음은 풀 Full>은 판단이 불가하다. <길쭉길쭉 클레이 하우스>의 경우 라인 클레이를 활용하여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서, 놀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에 다가갈 수 있어 놀이중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들한들 바람세상>은 ‘바람놀이’라는 전시와 연계하여 예술을 창작하고, 과학실험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가 직접 경험을 통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놀이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초록초록 비밀정원>은 촉각, 후각, 시각을 활용하여 자연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서 이 또한 어린이가 경험을 통

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놀이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단, <타박타박 문화여행>과 <내 마음은 풀 Full>의 경우 홈페이지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소개가 부족하여 활동 진행 방법을 알 수 없어 해당 프로그램이 놀이와 경험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두 번째 기준 ‘또래, 성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가?’의 경우 5개의 교육 프로그램 모두 상호작용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길쭉길쭉 클레이 하우스>의 경우 교육대상이 6~10세 단체이므로 또래 및 교사 등의 성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머지 4가지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서 함께 참여한 부모와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준 ‘누리과정 5개 영역과 관련이 있는가? 어디와 관련이 깊은가?’의 경우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누리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길쭉길쭉 클레이 하우스>는 클레이라는 미술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서 누리과정 5개 영역 중 ‘예술경험’에 해당하며, 내가 좋아하는 집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 ‘사회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타박타박 문화 여행>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들한들 바람세상>은 예술창작 활동이므로 ‘예술경험’에 해당하며, 과학실험 활동이므로 탐구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연탐구’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 마음은 풀 Full>은 자연과 관련된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자연에 대해 탐구하는 ‘자연탐구’에 해당한다. <초록초록 비밀정원>은 씨앗, 꽃 등을 관찰해보거나 이를 활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므로 누리과정 5개 영역 중 ‘예술경험’과 ‘자연탐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기준 ‘유아가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가?’의 경우 <초록초록 비밀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프로그램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초록초록 비밀정원>의 경우 교육대상의 기준이 ‘어린이 동반 가족’으로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소개란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부모가 자녀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길쭉길쭉 클레이 하우스>는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신청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아 각각의 흥미가 모두 고려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타박타박 문화 여행>, <한들한들 바람세상>, <내 마음은 풀 Full>의 경우 교육 대상의 기준

이 ‘어린이 동반 가족’으로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또한 자세히 안내되지 않아 유아가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교수·학습’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을 토대로 선정한 4가지 기준에 따라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보았다.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놀이와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관해서 모든 전시물이 해당되었고 교육 프로그램은 일부가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놀이와 경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래 또는 성인, 전시물과의 상호작용 측면에 관해서는 분석 대상이 된 전시물 총 15개 중 3개는 또래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나머지 12개의 전시물은 전시물과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람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유아 단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상호작용의 형태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별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시물은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관련된 전시물은 5개, 의사소통 영역은 3개, 사회관계는 7개, 예술경험은 5개, 자연탐구는 5개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관계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2개, 예술경험 영역은 3개, 자연탐구는 3개이었으며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었다. 전시물에서도 의사소통 영역의 비중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의사소통 영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관련된 전시물은 다른 영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유아가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전시물은 전시장에 여러 전시물이 있으므로 유아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은 동행하는 보호자가 유아를 대신하여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유아에게 선택권이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보호자가 유아의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세히 안내할 수는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저출산 시대 박물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적 지원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있다고 보고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유아 대상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기초로 추출한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기준은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가, 상호작용의 형식은 어떠한가, 누리과정 5개 영역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유아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선택 가능한가 네 가지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유아 수준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및 성인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험전시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체험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의 기준을 더 세분화하여 어린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은 개정 누리과정 속 5개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5개 영역은 유아의 생활과 경험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나타나며, 유아는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은데,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준에 따른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우선 전시물의 활동 방법과 내용은 살펴볼 수 있었지만 유아가 전시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교육 장면을 관찰하지 못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교육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

현재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결국 인구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박물관은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심의 방문객들의 가족 유형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조부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시물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줄고 있어 자녀의 수가 적은 가족은 자녀의 사회성을 길러 주거나 양육과 관련된 조언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소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다른 가족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박물관이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람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 보다 포용적으로 변화한다면 저인구 시대에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국립어린이박물관, 검색일 2025년 4월 14일, 웹주소
<https://child.nmcik.or.kr/>
김두섭(2010).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303&list_no=369955&seq=1에서 2025년 4월 11일 인출.
김소형, 조희연 (2023). 어린이박물관의 유아 체험전시 프로그램 연구. 문화와융합, 45(11), 1341-1355.
김영미, 조윤경(2018). 어린이집 재원 영아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양육지원요구 분석: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145-171.
김효정(2024. 5. 8.)어버이날은 사라지게 될까?... ‘인구폭발’에서 ‘인구위기’의 나라가 되기까지.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0zypvj214o>에서 2025년 4월 11일 인출.
신권철(2017).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정책. 사회보장법연구, 6(2), 115-124.
위키백과(n.d.). 대한민국의 저출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0%80%EC%B6%9C%EC%82%B0에서 2025년 4월 11일 인출.
신화식, 이희경, 오은순, 광노의, 김명희, 이성희, Judy Cochran (2006). 영유아놀이지도. 교문사.
장화정 (2019). 어린이박물관의 역사와 정의, 한국 어린이박물관 백서 2016-2018, 국립중앙박물관.
홍승아(2017. 12). 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
U.N. (2024). 2024년 세계 인구 전망. <https://population.un.org/wpp/graphs?loc=410&type=Demographic%20Profiles&category=Population%20Pyramids&year=2050>에서 2025년 4월 11일 인출.

[출산을 저하로 인한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박물관 교육의 미래 역할 탐색]에 대한 토론문

이한용 | 전곡선사박물관장

본 발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박물관이 아동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저출산 시대 박물관의 교육적·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이를 박물관의 교육 서비스 제공 정책 및 운영 방향성과 연결 지어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시의적입니다.

본 발표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유아 대상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기반하여 ‘놀이 중심성’, ‘상호작용성’, ‘누리과정 5개 영역과의 관련성’, ‘유아 수준 및 흥미에 따른 선택 가능성’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분석과 실천적 대안의 모색은 향후 어린이박물관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발표의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유아 대상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 분석과 제언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 전시물: 놀이와 경험이 가능한 체험형 전시물 중심, 다만 또래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구조는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교육 프로그램: 상호작용은 가능한 편이나 놀이 중심성이 약하거나 프로그램 정보가 부족해 평가가 제한적임. 특히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족함.

- 3) 제언: 협력적 상호작용 체험 확대, 프로그램 정보 강화 및 세분화, 2019 개정 누리 과정의 5개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통합적 구현 필요.

현장 관찰 없이 홈페이지 정보에만 의존해 분석이 이루어진 점은 필자도 인정하는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향후 실제 참여 아동의 반응이나 학습성과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가 병행된다면 분석의 신뢰도와 깊이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필자의 분석과 현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필자께서 발표문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은 영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폭넓은 연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각 연령에 따라 발달 수준이나 교육 내용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필자의 보충 설명과 “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과 기능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발행일

2025년 5월 17일

발행인

이관호 | 한국박물관교육학회장

기획 및 진행

최명림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위원장
구민경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부위원장
박혜인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위원
유연미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위원
윤혜경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위원
이주연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위원
서지민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위원
김서희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간사
문선경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간사

발행처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디자인 헤이그래픽